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반도체 투심 약화에 나스닥 약세

- 주요 지수 혼조세: 나스닥 -1.5%, S&P500 -0.6%
- 잭스홀 연설 앞두고 기술주 매도세 지속
- 반도체 및 AI 관련 기업 주가 급락

Summary

미국 증시는 약세로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02% 상승한 44,922.27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각각 1.46% 및 0.59% 하락함. 이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스홀 연설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며 매물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데 기인함. 특히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중국의 외국인 칩 사용 제한 및 AI 산업의 거품론에 휩쓸려 급락하여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함. 팔란티어도 9% 넘게 급락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음. 반면 다우지수는 주요 소매업체 홈디포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동일점포 매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전망을 유지한 결과라는 분석임. 또한 인텔은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으며 주가가 7% 넘게 상승함.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파월 의장의 잭스홀 연설에 따라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번 주 예정된 월마트, 타깃 등 주요 소매업체의 실적 발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소비 경기 흐름을 파악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됨. 미국 주요 지수는 다우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과 S&P500이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임. (다우 +0.02%, 나스닥 -1.46%, S&P500 -0.59%, 러셀2000 -0.78%)

특징종목

인텔(+7.0%)은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의 자본 투자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등함.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매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주목받으면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낳음. 반면, 프로로지스(+5.0%)는 미즈호 증권의 주식 평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했음. 이로 인해 애널리스트들은 프로로지스에 대해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고 있음. 메타 플랫폼스(-2.1%)는 AI 정책에 대한 워싱턴의 조사로 주가 하락을 경험함. AI를 활용한 광고 시스템 강화와 인프라 개선 등 새로운 성장 경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작용함. AMD(-5.4%)는 Zen 7 프로세서의 유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으며, 애플(-5.9%)은 내부자의 지분 매도로 주가가 하락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바이킹 테라퓨틱스 (-42%)는 최근 발표된 Phase 2 비만 약물 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함. 이로 인해 엘리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됨. 로빈후드 (-6.5%)는 핀테크 주식의 랠리가 정체되었고, 경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영향을 미쳐 주가가 하락함. 최근의 시장 전반적인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임. 코인베이스 (-5.8%)는 금요일 예정된 경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핀테크

주식들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급락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1로 하락했음. 이는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전망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FOMC 회의록이 잠재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브라질 국채는 가장 큰 변화를 보이며, 금리가 14.05로 상승,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음.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8.28로 약간 상승한 가운데, EUR/USD 환율은 1.16로 하락했음. 이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전망 변화와 맞물린 것으로,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목표를 주목하고 있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 가격이 하루 동안 0.9% 하락한 62.51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최근 원유 수요 불확실성과 맞물려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결과임. 다른 에너지 상품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의 여파로 보임. 금속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3315.78로 소폭 하락, 투자자들이 금의 안전자산 특성을 재평가하고 있음. 다만, 리튬 가격은 급등, 이는 지속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